

● 최덕암씨 농장 앞에서 바라본 공사중단 현장. 농장에서 불과 3m 옆으로 고속열차가 지나가게 된다.

소음 · 진동으로 인한 양돈장 피해 현장

- 경북 경산 최덕암씨 농장

취재 : 조진현

최근 빠른 도시화와 고속철도 개설, 각종 개발 및 공사로 인해 주위의 양돈장이 소음·진동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울들어 우리 협회 농가상담센터로 들어온 문의만 해도 소음공해 피해가 가장 많다.

이는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며, 대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나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까지 이르고 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돼지의 유사산, 폐사, 성장지연 등 직접적인 피해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시 양돈장을 정상화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피해액이 발생되고 있어 피해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돈장의 소음·진동 피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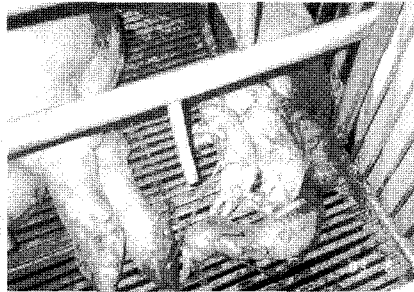
일반인들이 쉽게 피해규모를 산정하기는 어려워 서로간의 이견에 부딪히고 있으며, 양돈농가들은 적절한 소득보전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철도나 도로공사 등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양돈장을 폐쇄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 민원과 허가불가로 사실상 측사 신축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단 3개월 수익만을 보상해주는 휴업보상금만을 지급받고 양돈장을 폐업해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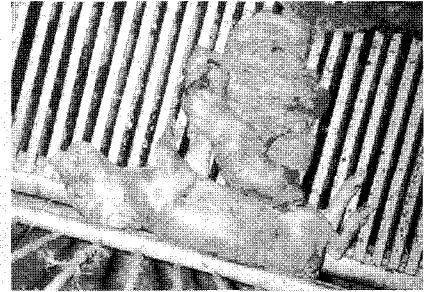
하루아침에 타의에 의해 생업을 잃어버리고 충분한 보상마저 받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놓인 피해농가들은 억울함에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 1>



<사진 2>



<사진 3>

●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임신돈에서 태반이 흘러나오기도 하고(사진 1), 유사산, 흑자(사진 2, <사진 3>)가 발생했다.

경북 경산에서 모든 38두의 그리 크지 않은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덕암씨는 작은 규모지만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부부가 직접 가족노동으로 알차게 양돈장을 꾸려오고 있었다.

최덕암씨는 학교 급식후 발생하는 남은 음식물과 제빵 부산물 등을 사료 대신 급여해 적은 규모에 비해 생산비를 크게 절감하여 왔으며, 8년 전에는 창고 30평, 돈사 120평을 정책자금 5천만원, 자부담 5천만원 총 1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 1천만원을 들여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계를 꾸려가는 수단으로 양돈장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년 전 경부 고속열차(KTX) 공사가 시작되면서 소음 진동으로 인해 유사산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제는 양돈장을 폐업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가운데, 손해배상 및 폐업보상 마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2년여 간의 끈질긴 보상요구와 실랑이로 최덕암씨 내외는 몸도 마음도 지쳐 말라가는 돼지들을 쳐다보며 한숨만 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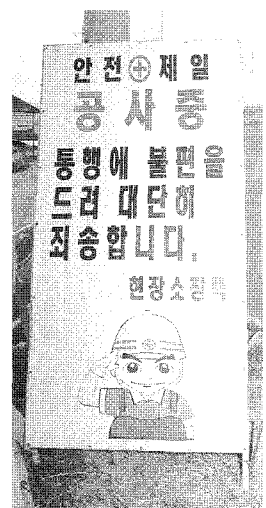
2003년 3월 축사 3m 옆 고속철도 공사 착공

경북 경산시 진량읍 당곡리에 위치한 최덕암씨 농장에서 불과 3미터 떨어진 위치로 경부 고속열차(KTX)가 지나가게 되면서 건설공사가 시작된 것은 2003년 3월이었다.

3월 18일 축사 바로 아래 있던 가옥 2채가 철거되면서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동원되었고 극심한 공사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였다.

돼지들은 놀라 꺾 꺾거리며 큰 소리를 질러댔고, 이후부터 유사산, 사산, 흑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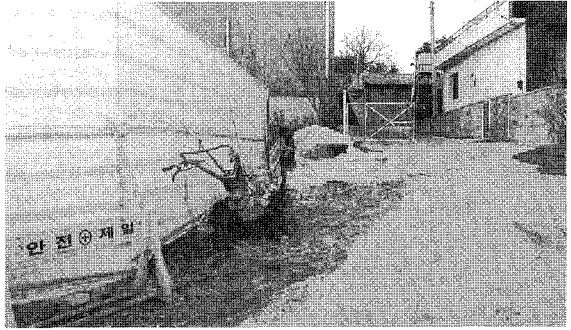
“대부분 아직 형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태반이 줄줄 흘러내리면서 유사산되고, 태어나는 자돈들도 거의 죽어서 나왔습니다. 한두 마리씩 살았지만 결국



<사진 4> 공사업체에서 농장 정문에 설치한 공사안내 팻말



<사진 5> 눈가리기식의 방음벽 설치후 공사가 재진행되고 있다. 방음벽은 단지 언덕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점선 안은 농장주의 공사현장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팻말)



<사진 6> 공사 측은 2005년 3월 초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먼지막을 농장 정문 앞에 설치했다.

며칠을 가지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또 4월 12일에는 다시 철거 폐기물 운반작업이 큰 소음과 함께 시작되었고, 이후에도 공식적으로는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간헐적으로 공사가 계속되어 8월, 9월에 이르러서는 저녁 11시, 12시까지 작업장에서 들려오는 쇳소리와 장비소리에 사람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농장과 자택이 함께 있어 생활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최덕암씨에게 이웃 사람들은 “이런 소음 속에서 돼지는 커녕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측은한 말을 전한다.

최덕암씨는 민원을 제기하고 다양한 대응

을 시도했지만, 공사는 계속되었으며 오히려 최근 공사 측인 ○○건설이 대구지방법원에 최덕암씨가 공사방해를 하고 있다고 소송을 걸어, 법원 집행관이 집 옆 공사장에 최덕암씨가 공사장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팻말을 박아두고 갔다.

최근 ○○건설 측은 <사진 5>와 같이 효과도 없는 방음벽을 지난 2005년 2월 말 설치하고, 농장 입구에 먼지 막을 설치한 후 3월 초 현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한다.

최덕암씨는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으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또한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

<표 1> 건설소음과 돼지피해의 관계

소음도[(dB(A))]	돼지 피해정도
50~60	유·사산(±), 자돈폐사(±), 산자수감소(±)
60~70	유·사산(±), 자돈압사, 폐사(±), 번식효율저하(±), 성장지연(+)
70~80	유·사산(++), 자돈압사, 폐사(++), 산자수감소(++), 번식효율저하(++), 모돈폐사(+), 성장지연(++)
80~90	유·사산(+++), 자돈폐사(+++), 산자수감소(+++), 번식효율저하(+++), 성장지연(+++), 모돈폐사(++)

• ±: 0~5%, +: 5~10%, ++: 10~20%, +++: 30%이상, ++++: 40%이상(진동도와 혼합되지 않는 성적임)

<자료: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

현실성 없는 휴업보상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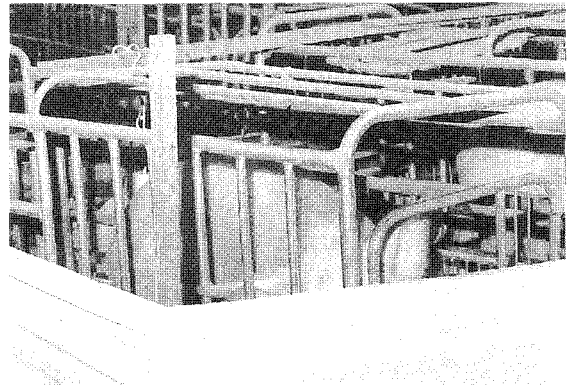
- “부업규모라 폐업보상 못해”

공사를 진행하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전문 연구팀에 의뢰한 결과 최덕암씨 농장의 소음측정치는 구반별 최대 평균소음도 89.3dB으로써 건설공사 기간 중 가축사육이 어렵다는 판명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는 본지 '97년 6월



<사진 7> 최덕암씨는 학교급식소와 제빵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남은 음식물 찌꺼기, 제빵부산물을 수거해 배합사료를 대체하고 있어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사진 8> 공사 중단 후에도 지속적인 간헐공사로 전 돈군에 걸쳐 위축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좀처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호를 통해 소음도가 80~90dB일때 돼지의 유사산, 자돈폐사, 산자수감소, 번식효율저하, 성장지연, 모돈 폐사 등이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표 1>

또한 공단측의 전문 연구팀은 최덕암씨 농장의 공사 피해 보상액을 268일의 공사기간과 350일의 재입식 기간을 포함한 618일의 휴업 보상기간을 계산하여 총 4천317만원으로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액은 실제 피해액과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전문 연구팀은 “이 농장의 경우 사육규모가 부업 수준인 점을 감안하여 농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휴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덕암씨 농장은 300여두 규모를 사육하고 있으나, 15년 전에 돈사 100평에 4천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한 이후 지난 8년 전에는 정부자금 5천만원을 포함한 1억1천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돈사를 증축하는 등 적지 않은 시설투자가 소요된 상태이며, 사료 대신 학교의 급식에서 나오는 남

은 음식물 등을 급여하면서 생산비를 현저히 줄여, 규모는 소규모 일지라도 소득금액은 배합사료를 급여하는 농가보다 더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도 부업의 규모를 200두

<표 2> 비육돈 1두를 위해 투자된 자본액 구성

구 분	자본액 (품질관리원 통계)	휴업보상 적용 (연구팀 안)	비 고 (검토결과)
가축자본	60,660원	60,660	직접 적용
유동자본	111,628	-	비 적용
대농구 자본	26,504	-	간접 적용
건물자본	100,664	-	간접 적용
토지자본	79,660	-	간접 적용
계	379,116	60,660	

<표 3> 번식돈 1두를 위해 투자된 자본액 구성

구 분	자본액 (품질관리원 통계)	휴업보상 적용 (연구팀 안)	비 고 (검토결과)
가축자본	246,203원	246,203	직접 적용
유동자본	279,953원	-	비 적용
대농구 자본	89,734원	-	간접 적용
건물자본	308,612원	-	간접 적용
토지자본	254,798원	-	간접 적용
계	1,179,300원	246,203	



〈사진 9〉 공사중단 조치 후에도 간헐적으로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장 옆 공터)

사육으로 정하고 있어, 최덕암씨 농장을 부업 규모라 하여 폐업보상 및 돈사 이전비 등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생계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휴업보상 산정 기준 또한 현실성이 없다.

가축의 평가 기준에서 연구팀은 비육돈(포유돈 포함) 289두의 가치를 자돈을 외부에서 구입할 때의 가치인 60,660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이는 돼지에 투자된 유동자본, 대농구자본(시설설비), 건물자본, 토지자본 등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농장 폐업시 돼지를 기르기 위해 투자되었던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번식돈 수익 산정기준 또한 마찬가지다. <표 2, 3>

또 보상기간 동안의 소득액 산출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연구팀에서는 번식돈, 비육돈 연간 소득액을 각각 158,000원/두(2000-2002 평균), 20,667원/두(2001-2003 평균)로 산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상기간 동안의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생산에 소요된 경영비를 제외하여 수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3월 중순 현재 최덕암씨는 계속되는 공사

소음으로 돼지는 물론 생활까지 심각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최덕암씨 부인은 공사장에서 인부들에 의해 끌려 나오면서 생긴 목 디스크로 병져 누웠다고 한다.

최덕암씨도 그동안의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원하고 있다. “돼지보다 이제는 사람이 먼저 죽게 생겼다”는 것이 그의 안쓰러운 말이다.

최덕암씨는 계속되는 양돈장 피해 속에서도 계속 자돈과 모돈을 구입하는 등 양돈업에 강한 애착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은 2년여 간의 피해로 생겨난 빚더미 밖에 없다고 그는 말한다. “20여 년간을 생업으로 여기고 양돈업을 해 왔는데, 당장 여기서 쫓겨나면 양돈장 시설 용자금 5천만원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동안의 피해로 집도, 땅도 모두 저당 잡히고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고속철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은 대기업이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건설을 상대로 소규모 양돈농가가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것 또한 쉽지 않다.

○○건설이 처음에는 “충분하게 보상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덕암씨는 그것만을 믿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 왔다. 국가적인 건설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생을 돼지를 키워온 한 축산농가의 농심(農心)과 생계(生計)가 무시되어서야 하겠는가? 앞으로 제2의, 제3의 억울한 피해농가가 생겨나서는 안될 것이다. **양돈**